

II. 사육두수 증감으로 본 한우산업 전망

(사)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장 이 문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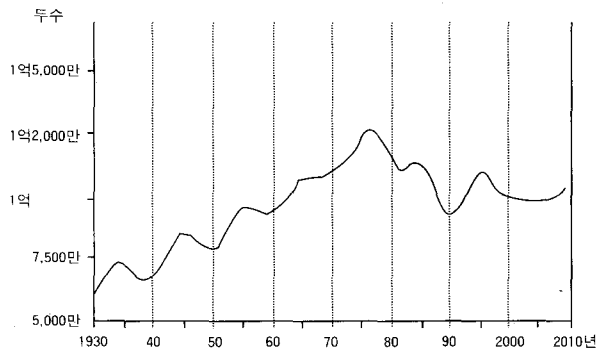
1. 서론

소의 사육두수 증감은 소의 가격과 아주 민감하다. 이러한 소의 사육두수는 가격과 더불어 소의 번식주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된다. 이처럼 소의 사육두수는 소의 가격과 출하두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증감하는데 이를 '캐틀 싸이클(Cattle Cycle)'이라 한다. 이 싸이클의 특징은 두수의 증가시에 정점을 만들게 되고 다시 감소되면서 새로운 정점을 형성하는데 이 두 정점의 거리가 하나의 주기다. 이 주기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된다. 이러한 주기가 두수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히 소의 가격과 밀접하게 되며, 소 사육농가들에게는 소의 매입과 매도의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다.

이 주기는 나라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대체로 10년, 일본은 6년이라고 하나, 우리 한우의 경우는 11년 주기로 정점을 바꾸어 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국의 주기적인 소 사육두수의 증감에 따른 주기를 살펴보고, 우리 한우와 비교하여 미래의 사육두수와 가격을 전망하여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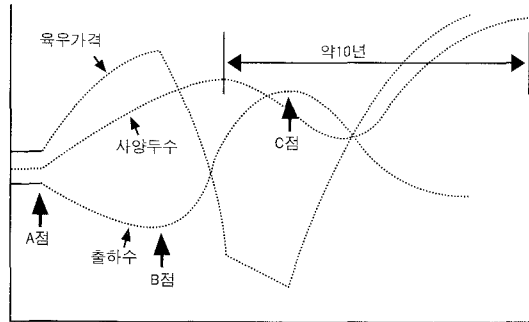
2. 미국의 '캐틀싸이클(Cattle Cycle)'

미국의 소 사육두수가 그림1에 제시되었다. 그림1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 사육두수의 증감이 거의 10년 주기로 반복하면서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 미국 소의 사육두수 증감

이러한 소 사육두수의 증감을 텍사스대학의 윌리엄 교수는 '캐틀사이클'로 비육우가격, 도축두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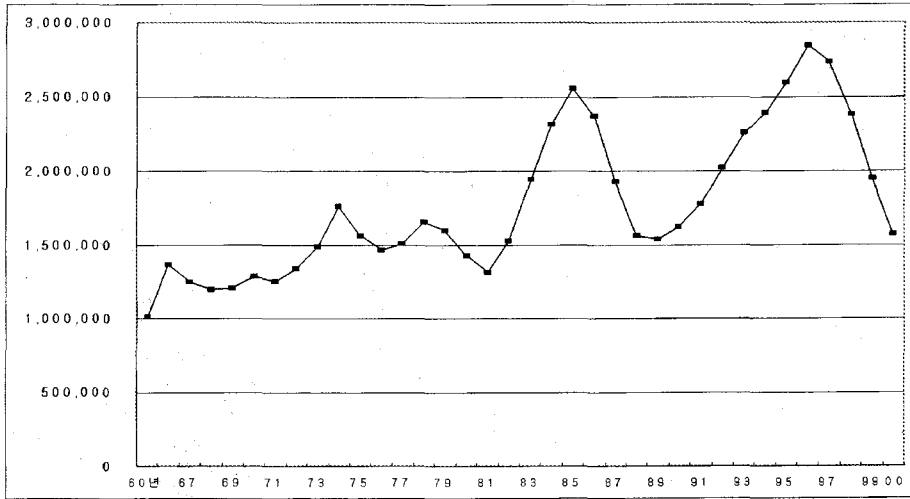
[그림2] 미국의 Cattle Cycle

그림2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축을 위한 출하두수가 줄어들면 육우가격이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사육두수도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출하두수와 육우가격은 거의 반비례하고 있으나 사육두수의 증감은 육우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함에도 두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비육우가격의 상승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역으로 비육우가격이 하락 한다고해서 곧바로 사육두수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육우가격은 사육두수에 1~2년의 시차 간격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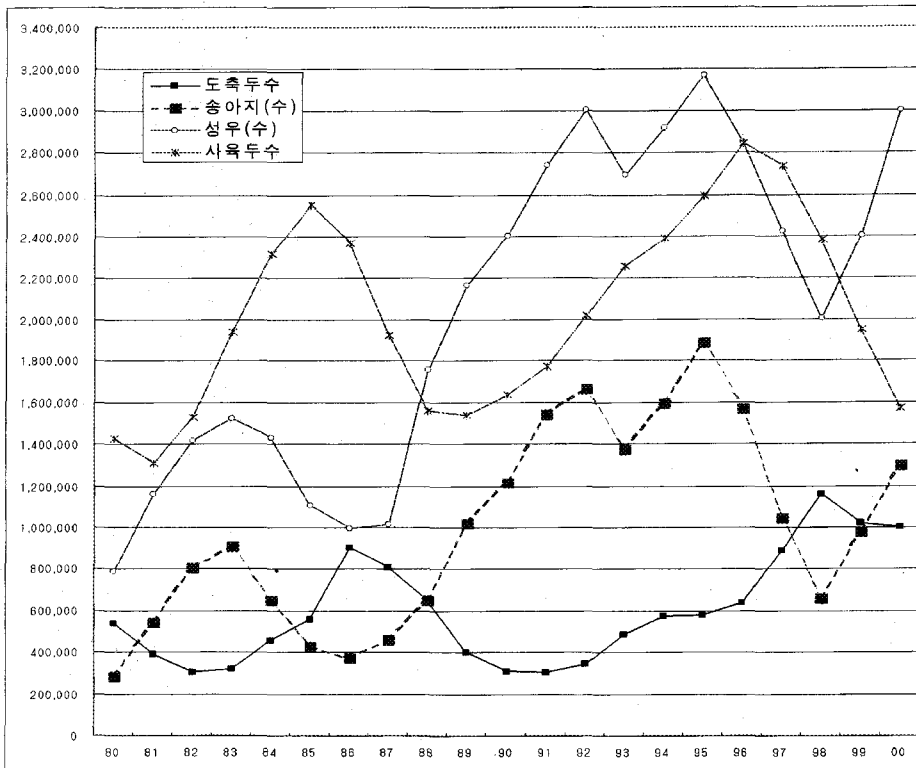
3. 한우의 '캐틀사이클'

가. 한우의 사육두수

지난 40년동안의 한우 사육두수의 증감이 그림3에 제시되었다. 한우사육두수는 63년도 136만두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11년후인 74년도에 178만두로 봉우리를 형성하고 다시 감소하다 증가 다시 11년후인 1985년에 255만두로 증가 역사 이래 한반도에만 젖소를 합하여 300만두의 소가 길러지고 있다는 해였다. 그러나 이 두수는 가격의 급격한 변동과 더불어 하락하기 시작하여 130여만두까지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하여 11년후인 1996년에는 한우두수만 300여만두에 육박하는 290여만두의 최고봉을 형성하면서 IMF와 수입개방이라는 악재와 더불어 지난해말 159만두로 곤두박질 했다. 11년후인 2007년에 최고두수를 갱신할지, 아니면 최고두수를 갱신하지 못한 봉우리를 형성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바닥이 다가오고 있는것만은 확실한데 어디쯤에서 멈출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수입개방이라는 너무나 강한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육우 가격과 송아지 가격으로 본다면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한다.



[그림3] 연도별 한우 사육두수



[그림4] 한우의 사육두수와 비육우 및 송아지 가격변화

나. 한우의 사육두수와 가격동향

최근에 전개되었던 85년부터 96년까지의 한우두수의 증감을 도축두수와 비육우와 송아지 가격으로 살펴보았다(그림4).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우의 경우도 비육우나 송아지 가격의 하락은 두수 감소보다 1~2년정도 앞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육우나 송아지 가격의 하락이후 비육우나 송아지 가격의 재상승은 사육두수의 최저치 보다 1~2년 앞서 비육우나 송아지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96년 이후 진행되고있는 사이클은 두수 감소 속도가 둔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약간 더 길어지지 않을까 예측되나, 미래 예측의 척도가 되는 비육우나 송아지 가격의 상승으로 보아 곧 바닥을 탈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한우의 '캐틀사이클'은 현재가 바닥으로 판단된다.

4. "캐틀사이클로 본 한우산업 전망"

1). 미국의 '캐틀사이클' 10년주기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한우의 '캐틀사이클'은 11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2). 이 '캐틀사이클'은 사육두수의 증감과 출하두수, 비육우나 송아지 가격에 영향을 준다. 비육우나 송아지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사육두수의 정점과 최저점의 1~2년전에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우사육농가는 이 사이클을 한우농장 경영에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졌던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한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한우농가의 현명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

